자매들을 위한 공과

21장

자매들의 봉사 (3)
교회생활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들

성경: 롬 16:1, 13, 요 19:25-27, 벧전 5:13하, 딤전 1:2-3상, 딛 1:4상

I. 로마서 16장은 전적으로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장에서의 강조점은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들이고,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 어머니를 언급한다—1, 13절.

A. 여러분은 '우리의 자매'라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1절.

B. 13절에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또 다른 특별한 개념이 있다: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C. 여기서 말하는 자매와 어머니는 혈육의 자매와 어머니가 아니다:

1. "우리의 자매 뵈뵈"는 혈육의 자매가 아니다.
2. 13절에 언급된 어머니는 루포의 친어머니이지만 그녀는 또한 바울의 어머니였다: 분명 그녀는 바울의 혈육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II.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치 "어머니, 나를 보지 마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의 사촌 요한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25-27절.

A. 이것은 단순히 당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록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B.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전이되고 변화된 생명이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생명을 해방하고 분배하는 그분의 죽음이 사람들의 생명을 전이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25-27절.

C.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옮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는 전이될 것이다.

D. 육신의 생명에 따르면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이고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이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을 받게 된다. 이 두 번째 생명 안에서 조카는 참 아들이 되고 이모는 참 어머니가 된다.

III. 극도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지방 교회 안에 참된 자매들과 참된 어머니들이 있어야 한다.

A. 우리 가운데 뵈뵈 같은 자매가 부족한 한 교회 생활은 실제적일 수 없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의 첫 구절에 이러한 자매의 섬김이 나온다.

B.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최고봉에 이르려면, 각지 교회들 안에 이렇게 참된 어머니들이 있어야 한다—13절:

1. 여러 세대 동안 믿는 이들은 여러 가지 건전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간과해 왔다. 만일 새로 믿게 된 각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돌봐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매우 많은 새 신자들이 영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1948년 훈련 집회에서 니 형제님은 성도들, 특히 자매들에게, 그들은 어린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많은 자매들이 두세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볼 수 있었다.

C. 최상의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생명이 전이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 안의 어린 사람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해야 한다.

1. 그때 예수님은 그 어린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2.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는,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D. 모든 자매들은 자신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필요가 있다. 더 어린 사람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취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자라게 될 것이다.

E. 그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돌보는 것은 커다란 시험이다. 천연적인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이 전이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실행은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천연적인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며 육적인 감정에 걸려 들것이다.

F. 이러한 실행은 십자가를 통해 전이된 생명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게 된다.

G. 모든 자매들은 몇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도록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매들에게 할당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매들 스스로가 부담을 가지고 취해야 하는 일이다.

IV. 여러분이 젊을지라도, 한두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갖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을 위한 보호가 되며 여러분을 지탱시켜 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A. 몇 명의 영적인 자녀들이 없다면 자매들은 쉽게 뒤로 물러나 넘어질 수 있다.

B. 두 명의 자녀는 그 어머니 된 자매를 제한하게 되지만 또한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 주게 된다.

C. 모든 자매들은 참으로 자매들이 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온 '우리의 자매 뵈뵈'는 참 자매였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그 같은 자매처럼 되는 것도 아직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들이 필요하다.

D. 주님의 종들조차도 어머니가 필요했다. 사도 바울도 어머니가 필요했다.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였다—16:13절.

E. 주님을 섬기는 부담을 짊어진 주님의 종들에게 어머니같이 그들을 돌보아 주는 자매가 없다면, 그것은 실로 불행한 일일 것이다.

F.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실한 십대들을 둔 가정들을 관심해야 한다. 여러분 각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을 영적인 자녀로 돌보고자 하는 부담을 취해야 한다.

V. 우리는 모두 두 번 출생했고 두 번째 가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가족 안에서 우리는 모두 두 번째 가족 관계가 필요하다—비교 요 1:12-13, 엡 2:19.

A. 가족은 그러한 관계 안에 있다. 가족 관계가 없어지면 더 이상 참된 가족은 없는 것이다.

B. 가족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격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가족 관계의 실재가 없다면, 교회 생활을 실제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C. 자매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하며, 또한 어머니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교회 생활 안에 참된 어머니가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제적이지 못한 것이 되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할 수가 없게 된다.

D.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려 할 때 각 방면에서 참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관심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VI. 실제적인 교회 건축의 70퍼센트는 자매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주께서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자매들이 뵈뵈처럼 되고 또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A. 이러한 자매들의 동역이 없다면, 형제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교회는 거의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B. 자매들인 여러분이 뵈뵈와 같이 지체들을 섬기며 어머니같이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70퍼센트는 즉시 건축될 것이다.

C. 그같이 될 때 영적인 건축에서 강한 연결이 있게 되며, 교회는 자연히 크게 부흥되고 사탄은 패배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자매들에게 달려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역의 말씀 발췌:

교회 생활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들

로마서 16장은 전적으로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장에서 교회 또는 교회들이라는 용어는 다섯 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결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지방교회인 겐그리아 교회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 사도의 서신서들 중 로마서 16장만큼 교회 또는 교회들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장은 거의 없다.

게다가 서신서들에서 자매라는 용어를 두 번 이상 사용하는 장은 로마서 16장 이외에는 없다. 형제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자매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매’라는 표현을 로마서 16장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다음 절에서 바울은 많은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형제’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단지 뵈뵈를 추천할 때만 ‘우리의 자매’라고 말하였다.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

또한 로마서 16장에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또 다른 특별한 개념이 있다.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13절). 로마서 16장의 강조점은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고 어머니를 언급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매와 어머니는 혈육의 자매와 어머니가 아니다. 바울이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혈육의 자매를 천거한 것이 아니다. 13절에 언급된 어머니는 루포의 친어머니이지만 그녀는 또한 바울의 어머니였다. 분명 그녀는 바울의 혈육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성경에는 바울의 혈육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 주는 구절이 없다. 13절의 어머니는 분명 루포에게는 혈육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혈육 관계가 아닌 바울에게도 어머니였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바울에게 적어도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디모데였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디도였다. 그러나 디모데와 디도는 모두 바울의 혈육의 아들은 아니었다. 바울은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 (딤전 1:2)와 “참된 아들이 된 디도” (딛 1:4)라는 친밀한 표현으로 디모데와 디도를 불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직계 가족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아들딸들이 있었는지를 말해 주는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마가라 불리는 한 아들이 있다고 말한다(벧전 5:13). 분명히 마가는 베드로의 혈육의 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말하며 그의 혈육의 아버지의 이름은 말해 주지 않는다. 베드로는 마가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는 마가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버지, 그의 믿음의 아버지였다.

성경에는 한 단어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며 거의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때에 네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고, 마리아의 자매와, 마리아라 불리는 다른 두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마리아의 자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을 가리켜 말한 것임)”(요 19:26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치 “어머니, 나를 보지 마시고, 당신의 아들(요한)을 보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의 사촌 요한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요 19:25-27). 이것은 단순히 당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기록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생명의 전이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전이되고 변화된 생명이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옮겨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줄 목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특별한 증언을 하고 있다 (요 19:26).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는 전이될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생명을 해방하고 분배하는 그분의 죽음이 사람들의 생명을 전이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며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마리아의 조카인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마리아의 조카인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입양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주예수님께서 재판관처럼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입양이 아니라 전이이다. 육신의 생명에 따르면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이고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이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생명 안에서 조카는 참 아들이 되고 이모는 참 어머니가 된다.

교회 생활에서의 어머니

교회 생활이 최대한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 교회 안에 참된 자매들과 참된 어머니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매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뵈뵈 같은 자매가 부족하면 교회 생활은 실제적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의 첫 구절에 이러한 자매의 섬김이 나온다.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최고봉에 이르려면, 각지 교회들 안에 이렇게 참된 어머니들이 있어야 한다.

이전에 나는, 사람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자매들도 간호사처럼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훈련시켜서 어머니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훈련장이란 어디에도 결코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어머니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에 대해 나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그 자녀가 그녀에게 어머니로서의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려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훈련이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처럼 쉽지가 않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자신의 어린아이를 통해 어머니 역할을 해 내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어제는 어떻게 어머니가 되는지 몰랐다. 그러나 오늘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되었고, 내일이 되면 어머니로서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여러 세대 동안 믿는 이들은 여러 가지 건전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간과해 왔다. 만일 새로 믿게 된 각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돌봐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매우 많은 새 신자들이 영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1948년 훈련 집회에서 니 형제님은 성도들, 특히 자매들에게, 그들은 어린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많은 자매들이 두세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데, 특히 십대 때는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돌볼 때 그들은 내 말을 존중하게 된다. 내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에 대해서 부모인 나에게는 마음을 잘 열어 놓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처럼 돌볼 때,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 줄 것이다. 그럴 경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녀들이 비록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을 것이다. 부모들과 십대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고분고분하고 순복하는 십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십대 자녀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말은 기꺼이 경청하려 한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며, 아울러 두 번째 어머니가 필요하다. 자매들인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생명 안에서 전이되고 어린 중, 고등 학생들 몇 명을 여러분의 자녀들로 취하여 이러한 부담을 짊어진다면, 교회는 5년 안에 부흥될 것이다. 최상의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생명이 전이되는 것이다.여러분은 교회 안의 어린 사람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해야 한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는,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모든 자매들은 자신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각기 자기 자녀를 돌볼 때, 여러분은 성장하고 원숙해지게 될 것이다. 천연적인 생명에 있어서 젊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최상의 방법은 두 명쯤의 자기 자녀를 갖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린 사람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취한다면, 여러분은 영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돌보는 것은 커다란 시험이다. 천연적인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이 전이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실행은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 즉, 여러분은 천연적인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며 육적인 감정에 걸려 들것이다. 이러한 실행은 십자가를 통해 전이된 생명에 의해서만 효력이 있게 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자매들과 참된 형제들이 필요하며, 특별히 참된 어머니들이 필요하다. 모든 자매들은 몇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도록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매들에게 할당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매들 스스로가 부담을 가지고 취해야 하는 일이다.

보호와 지원

몇 명의 영적인 자녀들이 없다면 자매들은 쉽게 뒤로 물러나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젊을지라도 한두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을 위한 보호가 되며 여러분을 지탱시켜 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영적인 자녀들을 돌볼 때 여러분에게는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아이가 없는 젊은 여성은 지나치게 자유분방할 수 있다. 그런 자매에게는 속박과 제한이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호와 지지도 없다. 두 명의 자녀는 그 어머니 된 자매를 제한하게 되지만 또한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 주게 된다. 자녀가 없다면 자매들이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두세 명의 영적 자녀가 항상 있다면, 그 자녀들로 인해 어머니 된 자매들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다.

모든 자매들은 참으로 자매들이 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온 '우리의 자매 뵈뵈'는 참 자매였다. 그녀는 간호사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보며, 다른 이들의 모든 필요를 살펴 헤아리고 돌봐 주는 후원자였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그 같은 자매처럼 되는 것도 아직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들이 필요하다. 주님의 종들조차도 어머니가 필요했다. 사도 바울도 어머니가 필요했다.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였다. 주님을 섬기는 부담을 짊어진 주님의 종들에게 어머니같이 그들을 돌보아 주는 자매가 없다면, 그것은 실로 불행한 일일 것이다.

많은 자매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참된 어머니들이 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자매들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에게 각각 12명의 자녀를 주는 것이다. 자녀를 더 많이 두면 둘수록 그들은 말하기를 덜 좋아하게 될 것이며 대신, 더욱 실제적인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너무나 많은 이론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말은 도움을 청하는 간구로 바뀌게 된다. 그들은 이제 겨우 아홉 명의 아이들을 목욕시켰는데 아직도 목욕시켜야 할 아이들 세명이 남아 있다. 그들에게는 누가 빨리 결혼해야 하는가에 관해 한담할 생각도, 의욕도, 마음도, 힘도, 역량도, 시간도 없다. 그 자녀들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실한 십대들을 둔 가정들을 관심해야 한다. 여러분 각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을 영적인 자녀로 돌보고자 하는 부담을 취해야 한다. 모든 부모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실제적인 가족 관계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인 서로의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2세대들은 모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참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그들에게 있어, 교회 생활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서 돌보고자 하는 부담을 취했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그의 형제 됨은 참된 것이다. 그리고 돌보는 자와 보살핌을 받는 자 모두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을 썼던 바울의 생각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우리 자매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 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생활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의 전이를 체험했음을 의미한다. 십자가가 여기에 있다. 십자가 이편에서 마리아는 마리아였고 요한은 요한이었다. 이 두 사람은 혈과 육으로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십자가 뒤편의 부활의 영역에서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들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가족 관계를 갖게 되었다. 첫번 째 관계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관계는 전이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성경 안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간과해 왔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혈육상의 가족의 자취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초기 믿는 이들 안에서, 두 번째 가족 관계를 이루게 하는 두 번째 출생은 쉽게 볼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출생에 관하여 말한다. 그러나 두 번째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두 번째 출생이 있다면 분명히 두 번째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가족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두 번째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두 번째 가족 관계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큰 가족에 속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참된 자매와 참된 어머니가 있는 가족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어른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서로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 돌봄은 우리를 위한 참된 양육이며 참된 보호이다. 나이 많은 자매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딸이 되기를 배울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두 번 출생했고 두 번째 가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가족 안에서 우리는 모두 두 번째 가족 관계가 필요하다. 가족은 그러한 관계 안에 있다. 가족 관계가 없어지면 더 이상 참된 가족은 없는 것이다. 가족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격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가족 관계의 실재가 없다면, 교회 생활을 실제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자매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하며, 또한 어머니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교회 생활 안에 참된 어머니가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제적이지 못한 것이 되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할 수가 없게 된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려 할 때 각 방면에서 참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관심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시험받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자신 안에 항상 갇혀 있는지를 깨닫지 못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여러분의 자녀들로 취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자녀로 취한 그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극도로 폭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부서짐에 대하여 이야기 할지 모른다. 나는 자매들에게는 그들을 부수는 데 일조하는 조력자로 남편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해 왔다. 그러나 자매들을 부수는 최상의 조력자는 영적인 자녀들이다.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한 사람을 돌볼 부담을 취한다면 철저한 부서짐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로 은혜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방식으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모든 자매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육신의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참되게 누리고, 축복과, 생명의 성장과, 영성을 얻는 최상의 길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어머니가 될 때,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것이 된다. 공허한 말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자매들이 그처럼 한담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녀들이 없어 그들을 돌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을 택하여 자녀된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면, 즉시 여러분은 매우 실제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자신의 천연적인 기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 그런 자녀보다 더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된 그들이 여러분을 땅에서 삼층천으로 이끌어 올려 줄 것이다.

로마서 16장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장은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행에 관한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이 장에서처럼 그렇듯, 참되게 섬기는 자매들과 많은 어머니들이 있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여전히 실제적이지 못하며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매들인 여러분이 뵈뵈와 같이 지체들을 섬기며 어머니같이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나는 교회의 70퍼센트는 즉시 건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건축은 70퍼센트가 자매들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자매들의 동역이 없다면, 형제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교회는 거의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자매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고 어머니들이 될 때, 교회는 즉시 건축될 것이다. 그같이 될 때 영적인 건축에서 강한 연결이 있게 되며, 교회는 자연히 크게 부흥되고 사탄은 패배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교회 건축에 있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자매들에게 달려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교회 건축의 70퍼센트는 자매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주께서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자매들이 뵈뵈처럼 되고 또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서 본 현숙한 여인 2권, 12 장, pp. 255-277)

연구 문제:

1. 요한복음 19장에 근거하여 자매들은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기 위한 참된 생명의 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2. 영적인 어머니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에 몇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3. 두 번째 가족관계란 무슨 뜻이며 어떻게 교회 생활 안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읽을 말씀:

1. 성경에서 본 현숙한 여인, 2권, 12 장

자매들을 위한 공과

22장

자매들의 봉사 (4)
자매들의 기도

성경: 행 12:11-12, 엡 6:18

I. 교회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기도의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

A.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본다.

B. 이것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주로 한 자매의 집에서 드려졌음을 가리킨다.

C.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기도의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본다.

D. 말씀 안에 있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활동은 형제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대개 자매들은 은밀히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한다. 뒷받침하는 주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E. 베드로의 사례에 있었던 상황이 정확히 이러했다. 옥에서 나온 후 그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11-12절.

II. 우리는 기도가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영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면, 시간과 장소가 기도 가운데 영을 해방함에 있어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A.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도록 하기때문에, 우리의 영이 닫혀있는 많은 경우를 대할 것이다.

B. 우리의 훈련은 우리가 혼자 있거나 또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된다. 기도집회에서의 우리의 훈련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아침시간에서 우리의 훈련과 같아야만 한다.

C. 어떤 형제자매들은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기도 집회에 참석한다.

1. 어떤 이는 "나는 하루 종일 바빠서 심신이 피곤하니, 이 기회에 쉬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도록 하고 나는 아멘만 하겠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자매는 본인이 기도할 장소가 아니라고 느낀다.
2.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입을 열지 않을 때, 집회 전체가 무겁고 가라앉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D. 지금부터 우리는 장소나 사람이나 다른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엡 6:18).

E. 우리가 살아 있고 충만하며 높여진 영, 곧 강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열려진 영을 갖는것은 어렵다. 우리가 살아 있고 충만하며 높여진 영, 곧 강한 영을 갖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에 시간을 써야만 한다.

III. 우리는 우리자신을 제한하고 기도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A. 많은 경우에 우리의 쓸데 없는 생각은 기도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1.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고 느슨하다면, 우리는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정처없이 떠돌게 되고 산만하게 될 것이다.
2. 주님의 은혜로, 우리자신을 제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생각도 제어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멈출 때, 우리는 즉시 고요해 질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 쉬워질 것이다.

B. 감히 말하건데 나는 많은 형제 자매들-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더 그렇다 - 말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보아 왔다. 이것은 그들이 깨끗하지 않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58년,* 1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누림을 실행하는 길, 19장, 552쪽).

1. 그들이 그들의 언사 안에서 훈련받지 못했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온 사방으로 날아간다. 이런 방식으로 말한 후에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영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2. 만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떠돌아 다니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기도할 수 없다.
3. 누구든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할 때, 그의 온 존재가 길을 잃게 된다. 그의 존재를 멈출 길이 없으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4. 그러므로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말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의 존재를 제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IV.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A.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접촉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해야 함을 의미한다—요 4:24.
   1.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때, 우리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정신활동을 멈추고 우리의 온 존재를 외적인 것에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만 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B.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영으로 돌이키는데 도움을 얻는다.
   1.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거나 고요해지는 것을 할 수 없다면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2. 그런 다음 성경말씀을 사용하여 그의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우리를 만지는 어떤 말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쉬운 방법이다.
   3.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접촉하며 진정한 기도를 드릴수 있게 될 것이다.

V.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데 함께 동역해야 한다. 만일 집회 중에 형제들만 계속 기도하고 자매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반신불수인 사람과 같이 아름답지도 않고 살아 있지도 않은 것과 같다.

A. 몇 명의 형제가 기도하고 나서 몇 명의 자매가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몇몇 자매가 기도한 후에, 몇몇 형제가 더 많은 기도로 참여해야 한다.
   1. 어떤 때는 자매들이 형제들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형제들은 잠시 기다리며 약간의 시간을 자매들에게 남겨 주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자매들은 반드시 기도의 분위기가 아주 뜨거울 때에 형제들이 갑자기 기도를 멈췄다면 자매들이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3. 이때 노련한 자매가 재빨리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 만일 노련한자매가 없다면 어리고 조용하며 겁 많은 자매들은 더더욱 감히 이을 수 없게 된다.
   4. 자매들이 이어갈 때 형제들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절대로 즉시 기도를 낚아채서는 안 된다. 더욱 많은 시간을 자매들이 기도하도록 남겨 주어야 한다.

B.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강화된 방식으로 동역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보통 자매들의 인수가 형제들 보다 비교적 많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더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집회를 누림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1. 만일 자매들에게 기도하도록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들은 더욱 해방될 것이다.
   2. 형제들은 자매들로 하여금 기도할 기회를 가지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자매들은 합당한 때에 동역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3. 이러한 동역은 형제 자매들의 기능이 합당한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한다.

사역의 말씀 발췌:

자매들이 기도에 앞장섬

둘째로,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본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주로 한 자매의 집에서 드려졌음을 가리킨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기도의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본다. 말씀 가운데 있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활동은 형제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대개 자매들은 현장 뒤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한다. 뒷받침하는 주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사례에 있었던 상황이 정확히 이러했다. 옥에서 나온 후 그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34)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때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기도하면 즉시 영을 해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이 방면에서의 훈련이 부족했다. 비록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보지 못했다. 혼자 기도할 때 그러해야 하며,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한다. 혼자서 아침 부흥하며 기도할 때 이러해야 하며, 집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닫힌 영안에서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

예를 들면,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에 갈 때 보통 우리가 갖는 관념은, 이 집회는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이므로 메시지를 전하는 형제와 성경 읽기와 찬송을 인도하는 형제들만 기도하면 되고 나는 메시지를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영을 닫아놓고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어떤 때는 심지어 기도 집회에서조차도 이렇게 한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기도 집회에 참석해도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어떤 이는 "나는 막 육체를 따라 성질을 냈는데 무슨 낯으로 기도한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나는 갓 구원을 받아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말씀도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입을 열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나는 하루 종일 바빠서 심신이 피곤하니, 이 기회에 쉬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도록 하고 나는 아멘만 하겠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자매는 "나는 자매라서 머리를 가려야 하니까 입을 많이 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입을 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 집회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장소나 사람이나 다른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엡 6:18).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고, 또한 기회를 붙잡아 기도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1-1962년,* 2권,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건축, 4장)

기도함

영을 열려면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당신의 영이 열리려면 영을 많이 훈련하고, 영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그의 영이 위축되어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방법이 없다. 당신이 그의 영을 열어 주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살아 있고 충만하며 높여진 영, 곧 강한 영은 쉽게 움직이며 또한 쉽게 흘러나온다. 우리가 살아 있고 높이 올라가며 강하고 신선한 영을 갈망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모두 영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안다. 소리를 내는 기도도 기도이고,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도 기도이며, 심지어 다만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는 것도 기도이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즉시 당신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당신의 영은 더 많이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고, 그 결과 당신의 영은 틀림없이 살아 있고, 신선하며, 충만하고, 해방될 것이다. 이때 당신이 영을 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연합된 영이 기도의 영일 뿐 아니라(롬 8:16, 26),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도의 영이라고 불리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은총과 간구하는 영 (슥 12:10, 영어 회복역 참조)”이라고 칭했다. 이러한 영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려면 역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증명한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훈련받게 할 수 있으며,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열리게 할 수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1-1962년,* 2권,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건축, 5장)

우리자신을 제한하고 기도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우기

몇몇 형제 자매들은 성령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명확하지만 여전히 그 영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기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부딪힌다. 우리는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것이 온다. 우리가 두번째 생각을 다루고 있을 때, 또 다른 것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들은 벌떼처럼 들어온다. 이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안에서 윙윙 되며 기도하는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면 화가 나고 더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선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패하였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쓸데 없는 생각은 우리의 기도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 이것들은 우리를 우리의 영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여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느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산만하게 한다. 훈련되지 않고 느슨한 사람은 산만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고 느슨하다면, 우리는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느슨하다면 우리의 생각은 정처없이 떠돌게 되고 산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더 느슨해 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산만해 질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생각도 제어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멈출 때, 우리는 즉시 고요해 질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 쉬워질 것이다.

감히 말하건데 나는 많은 형제 자매들, 특히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말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보아 왔다. 이것은 그들이 깨끗하지 않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이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말을 멈출 수 없는 것 같다. 그들이 그들의 언사안에서 훈련받지 못했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온 사방으로 날아간다. 이런 방식으로 말한 후에는 기도하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영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떠돌아 다니게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없게 된다.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할 때, 그 온 존재가 길을 잃게 된다. 그의 온 존재가 온 세상을 방황하는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된다.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말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의 존재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많은 성도들은 그들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다. 몇몇은 화내는 와중에 그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고백하고 기도할 줄 안다. 그러한 기도와 고백은 전부 그들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런 사람은 쉽게 그의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쉽게 그의 영안에서 기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와중에도 그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영으로 쉽게 돌이킬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한번 화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다. 다른 이들이 그들을 멈추려 해도 한번 화나면 그들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제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멈출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의 영으로 돌이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의 온 존재가 그의 성질로 인해 소비되어 버렸다.

앞선 예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기가 쉬어질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순종적이 되며, 우리가 멈추고, 고요해지며,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 쉬워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생각들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질 것이다. 영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신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외향적인 사람들과 내성적인 사람들로 분류하곤 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것 같으나 기도하기 위해서 고요해지는 것을 어려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흡수하고 누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들이 응답받지 않은 많은 기도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한 사람이 매일 일정 시간을 헌신하고 그의 생각을 고요하게 하며 그의 존재를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유익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령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자신을 제한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기도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을 보기를 배움

만일 우리가 우리자신을 제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즉시 입을 열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5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10가지를 보았다. 우리가 고요해 진 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져야 한다.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을 만져야 함을 의 미한다. 우리가 밖의 것들로 분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때, 우리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정신활동을 멈추고 우리의 온 존재를 외적인 것에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영이고 우리의 영안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리의 온 존재가 가득차 있고 우리의 마음안에 살면, 하나님은 사라지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분은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등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외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즉시 만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존재를 만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지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명확한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기름부음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고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의 도움을 받음

누군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영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새신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만일 한 사람이 그의 영으로 돌이키거나 고요해지는 것을 할 수 없다면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성경말씀을 사용하여 그의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생각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만지는 어떤 말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쉬운 방법이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도움 없이도 그들의 영으로 바로 돌이킬 수 있다. 그들이 기도하고자 할때는 언제나, 그들은 눈을 감기만 하면 그들의 온 존재를 멈출 수 있다. 어떨때는 눈을 감을 필요도 없이 그들 옆에서 대화하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그들의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그들은 산만케하는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 한 형제가 말하길 그 앞에서 다른 이들이 싸울지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치든지 상관없이 그는 고요히 주님을 만지며 기도하고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성령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영안에 있는 경험이 매우 많은 사람이며 그의 영은 매우 강하다. 그는 그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어떤것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가 기도하고 싶을때는 언제나, 그의 온 존재를 그의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이들이 그들 앞에서 언쟁하고 싸울때 고요해지는 것은 차치하고 설사 혼자라 할지라도 고요해질수 없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한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 사람이 많은 세월동안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성숙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숙도는 얼마나 많은 세월동안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알고 있는지와는 상관없다. 오히려 성숙도는 우리가 기도할때 고요해지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지와 연관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정도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럴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어리고 우리를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멈추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수 있을때 까지 계속 훈련해야 한다.

연습을 시작하면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천천히 성경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존재를 만지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쉽게 고요해지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수 있게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58년,* 1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누림을 실행하는 길, 19장, pp. 551-555)

집회 가운데서 동역함
사람의 동역

집회 안에서의 동역의 첫 번째 방면은 사람의 동역이다. 예를 들면, 몇 명의 형제가 기도하고 나서 몇 명의 자매가 이어서 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동역이다. 만일 집회 중에 형제들만 계속 기도하고 자매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반신불수인 사람과 같이 아름답지도 않고 살아 있지도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몇 명의 형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다음으로 자매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같은 규례는 없다. 우리는 집회 중에 기도할 때에 사람의 동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집회 중에 형제들과 자매들은 생동감 있게 서로 동역해야 한다. 몇 명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나면 몇 명의 자매들이 이어서 기도해야 하고, 몇 명의 자매들이 기도하고 나면 다시 몇 명의 형제들이 동역하여 기도해야 한다. 어떤 때는 자매들이 형제들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형제들은 잠시 기다리며 약간의 시간을 자매들에게 남겨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반드시 기도의 분위기가 아주 뜨거울 때에 형제들이 갑자기 기도를 멈췄다면 자매들이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때 노련한 자매가 재빨리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 만일 노련한자매가 없다면 어리고 조용하며 겁 많은 자매들은 더더욱 감히 이을 수 없게 된다. 자매들이 이어갈 때 형제들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절대로 즉시 기도를 낚아채서는 안 된다. 더욱 많은 시간을 자매들이 기도하도록 남겨 주어야 한다. 형제들은 영감이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다. 창세기 33장 13절과 14절은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하고, 또 나는 젖을 먹이는 양떼와 소떼도 돌보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무리해서 몰고 가면 가축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님께서 이 종보다 먼저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에 가는 가축 떼의 걸음과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이들을 천천히 이끌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연약한 아이들과 막 태어난 소나 양 새끼가 너무 빨리 걸을 수 없어서 그들을 체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집회 중에 자매들을 체휼해야 한다. 어떤 때는 자매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형제들에게 기도의 방향을 빼앗기기도 한다. 만일 자매들에게 기도하도록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들은 더욱 해방될 것이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강화된 방식으로 동역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보통 자매들의 인수가 형제들보다 비교적 많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더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집회를 누림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형제들은 자매들로 하여금 기도할 기회를 가지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자매들은 합당한 때에 동역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동역은 형제 자매들의 기능이 합당한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1-1962년,* 2권,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건축, 24장)

연구 문제:

1. 자매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기도의 방면에서 앞장서야 하는 것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어떻게 보여 줍니까?
2. 쉽게 영으로 돌이키고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특히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3. 아름답고 살아있는 집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은 기도안에서 동역하는 것을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추가로 읽을 말씀:

1. *사도행전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34
2. *위트니스 리 전집, 1961-1962년,* 2권,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건축, 4, 5, 24장
3. *위트니스 리 전집, 1958년,* 1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누림을 실행하는 길, 19장.